

국가정의·자유실현 '종교의 몫'

한국불교연구 '종교와 국가' 주제 국제학술대회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국가에 대한 불교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는 국제학술대회가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 주최로 오는 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인생관이라고 단언하고 (화엄경)의 삼귀예문(三歸禮文)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불교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영박사



◇포르교수



◇황심천씨



◇고범서교수

“모든 국민 보살되게 하는 것” 불교의 사명 전제·비판 통한 방향제시로 공동체 구현

일본 국가에 대한 개념은 재해석되고 재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년 엘리트들이 보살이 되고, 국민 모두를 보살이 되게 하는 것이 불교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장은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이 아닌, 그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세계관이자

권과 종교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논'에서 불교는 언제나 탁월한 정치적 역할을 발휘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 속에서도 종교적 신성함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르 교수는 불교의 이상이 '권력의 단절'에 있으나 종교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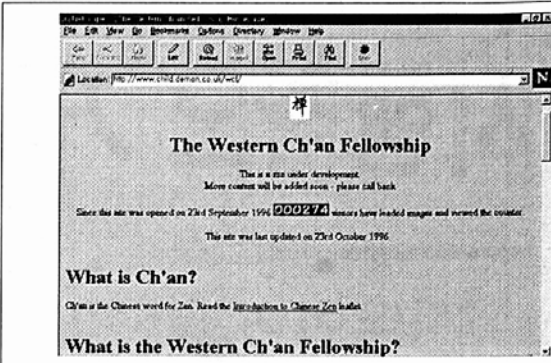
생명력인 불교적 실천은 모든 권력의 근원에 이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왕권과 종교가 상호보완의 이데올로기 협력의 역할을 이뤄왔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따라서 종교의 정치적 힘은 비록 세속화된 것이긴 하나 성스러움과 신비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심천씨(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는 '중국 역사상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불교 등의 각 종교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축적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중국 종교와 사회주의는 공동 발전하는 추세이므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중국의 종교노선은 종교가 사회주의 국정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어냈으며, 따라서 국가와 종교의 협조를 통해 상호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범서 교수(한림대 과학원 신학)는 '국가와 종교 : 기독교의 경우'에서 국가는 종교가 그 본연의 역할 수행을 보장해야 하며, 종교는 국가 또는 정부의 절대화를 막는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의와 자유 실현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정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영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불교 교우회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룬 유럽지역에 중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하는 '선불교 교우회'가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선불교 교우회'는 영국의 서남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브리튼선불교'가 주축이 돼 영국을 비롯해 유럽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관단체들이 모여 지난 9월초에 브리스틀에서 결성됐다. 쉐(Ch'an)이란 선(禪)의 중국식 발음표기.

이 사이트를 개설한 '선불교 교우회'의 초대 회장 존 크록씨는 성업스님(대만 農禪寺)의 법제자. 성업스님은 지난 63년부터 일본·미국 등지에서 선(禪)센터들을 개설해 중국불교의 포교에 전념한 스님. 따라서 '선불교 교우회'를 방문하면 중국불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불

오래된 지혜 禪佛교 진공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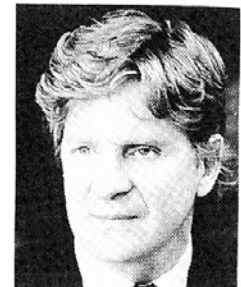
교개관 △수행관 △권장도서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선불교 교우회'가 제공한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불교 교우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진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禪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계도' 등이 불자네트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이외에도 '선불교 교우회' 산하기구인 '칭화연구소'의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내용을 제공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1895년 대만에서 설립된 불교 연구 및 교육기관. 또 뉴욕·캘리포니아·대만 등지에서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선불교 교우회' 사이트 주소는 'http://www.child.demon.co.uk/wcf/'이다. <우>

인터뷰

“불교윤리관 민주주의 요체”

써만교수가 말하는 불교의 사회관

지난 10월 24~25일 열린 동국대 개교90주년 불교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해외학자중 가장 관심을 끈 학자는 로버트 써만 교수(Robert Thurman·美 콜롬비아대 불교학). 다른 해외 학자들이 발표문 번역본을 미리 배포한 것과 달리 발표 당일 뒤통에 영어 원문만을 제시해 불경을 읽음에 도전적인 발표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청중들을 매료시킨 것은 불교에 대한 그의 해석과 미래관이었다. “불교의 위대한 윤리관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속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적 평등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정의의 구현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한대 티벳서 승려생활 “불법·세속 조화위해 노력”

1965년 14대 달라이라마로부터 수계를 받고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티벳스님이 되어 한때 승려생활을 하기도 했던 써만 교수가 이때부터 깨달기 시작한 것은 ‘불교에는 사회적 윤리가 없다고 믿는 서양인들의 편견이었다. “부처님의 대각은 세속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고통의 극복을 제시하는 불교의 교육주의적 사회윤리가 어떻게 세속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동질적으로 보는 불교의 윤리관은 대중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티벳이 부처님 법을 내게 전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기 위해 불법의 지혜와 세속적 지식의 조화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종교적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닌 하나이며, 세상을 평화롭게 비출 수 있는 법행임을 써만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우>

“우주생멸 연기론서 비롯”

불교는 진화론 어떻게 보나

교황 ‘진지한 가설’ 인정 메시지 “진화-창조론 서구 이분법적 사고”

최근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30여년 만에 진화론을 인정함으로써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독교가 그동안 출몰 창조론을 주장해왔음을 고려할 때 교황이 교황청 아카데미에 보낸 메시지에서 할스 다윈의 진화론을 ‘진지한 가설’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한 ‘창조론’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는 과연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할 것인가.

불교는 진화나 창조는 2차적인 문제일 뿐 인생의 고(苦)를 푸는 문제(事無佛法界)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참인(佛)이 나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불교는 진화론이나 창조론 보다는 연기를 강조하고 있다.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은 “불교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업력’이라는 특수한 에너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는 “연기에 의해 스스로를 조직한 ‘자기조직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우주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각각의 생명속

에 또다른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성규교수(영남대 외대) 역시 “생명의 태동근원은 연기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서구의 2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으로는 생명태동의 진리를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김교수는 ‘연기론=존재론+창조론+진화론’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양형진교수(고려대 물리학)는 “진화론에 가깝긴 하나 이는 포괄적으로 볼 때 연기론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창조론이 사물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상주론적 입장이라면 진화론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아의 사상이며, 우주의 생멸 또한 연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는 ‘조선시대의 승정에 대하여’(김영태교수·동국대) 등 4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은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1회 학술발표회를 열고 원효사상을 폭넓게 고찰한다. 서운길교수(동국대) 등 5명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15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제26회 추계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최성열교수(조선대)와 9명이 각기 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다.

단신

다석사상 추계강연회 열려

다석사상연구회(회장 서영훈)는 지난 10월 25일 문화일보홀에서 '다석사상 추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홍호교수(감신대)는 '다석 유영모의 반야심경 해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다석 선생은 사법계(事法界)와 이법계(理法界), 즉 색(色)과 공(空)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사무에법계(理事無礙法界)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참인(佛)이 나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학사·불교학회 11월 8·15일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원효학회와 잇달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는 오는 8일 동국대 명진관에서 '승장과 문학'을 주제로 제6회 정기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

6~8세기 불상·사원 양식 유사

일본에 끼친 백제불교 영향 조명

2일 미술사학대회 열려

지난 2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 미술사학회(회장 이성미) 주최 '한국미술의 대외교섭 백제편'을 주제로 한 제5회 전국미술사학회에서는 백제의 불교조각과 건축이 일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는 논문 3편이 발표됐다.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원)는 '백제 불상조각의 대외교섭' 논문발표에서 문헌을 살펴볼 때 백제는 6세기 후반부터 일본에 집중적으로 불교를 전파해 일본을 불교국으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상을 보내 백제불상을 일본 사찰에 봉안하게 하는 등 불교전파 초기 백제에서 만든 백제불상이 일본의 모든 사찰에 봉안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때부터 고대조각인 비조불상(飛鳥佛像)과 동일한 점등 백제불상은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중국·북조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씨(문화재연구소)는 '백제건축의 대외교섭'에서 백제 불교건축이 들어가기 전의 일본건축은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6세기 이후 비조사(飛鳥寺·나라시대)의 조영을 시작으로 사원이나 궁전의 건축은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7~8세기에 걸친 사원건축의 유구(遺構)는 이같은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왕기교수(목원대 고미술사학)는 '백제건축의 대외교섭을 살피면서 백제건축의 양식과 기술이 중국건축 양식의 형성시기와 동시적으로 발전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중국과는 달리 복잡하거나 화려함을 극히 배제하였음을 유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설립기념 대법회

21세기를 향하는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화, 전문화,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사회를 계도해 나아갈 사명을 지닌 불교인은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포교와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위해 다양한 방안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 해야 할 불사는 인재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대중불교의 두 수레바퀴 중 한 축을 이루는 재가자, 특히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 해야만 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관심사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 재단법인 금정장학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력을 모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금정장학회 설립 기념대법회에 부디 참석하셔서 이 조그마한 모임이 불교인재육성의 강로수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사장 벽파 합장

■ 설립기념법회

- ▷ 일 시 : 1996년 11월 15일 (금) 오후 6시
- ▷ 장 소 : 동래 운천장 허심청 대연회장
- ▷ 초청 법사 : 월주근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 설립발기인 : 덕명스님(전 범어사 주지) 홍교스님(전 범어사 주지) 보혜스님(법륜사 주지) 여현스님(정수사 주지) 영환스님(범어사 부주지) 벽파스님(전 범어사 주지)

▷ 장학수혜자(일일분 - 등록금)

- 범어사 재적 승려중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각 대학 대학원에서 불교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스님 및 범어사 강원에서 정진하는 스님 20명
- 중립학교에 재학중인 신심 돈독한 불자 청소년 20명

■ 금정장학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신행운동을 전개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을 뒷받침합니다
- 장학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인재육성에 힘씁니다
- 불교 문화의 생활화,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 불교관련 학술분야를 연구 증진하여 불교진흥에 기여합니다

■ 법인사무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TEL 051)403-7096 · 9802
FAX 051)403-9810

■ 행사연락처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 3동 369-22
보현선원
TEL 051)853-5486-7